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칸서 선보인 첫 연출작 '헌트'… 해외매체들의 평가

"이정재표 액션 원더풀"

20일(한국시간)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첫 연출작 '헌트'를 공개한 배우 이정재.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이승미 기자의 여기는 칸

5회 상영하는 시사회 티켓 전석 매진
해외매체 취재 요청 쇄도 출국 미룰판
강렬한 액션·배우들의 카리스마 극찬
인물간 짜임새 부족 등 엇갈린 평가도

배우 이정재가 세계적 인기를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입증했다.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에 파묻혔고, 첫 영화 연출작 '헌트'에 대한 현지 관심도 높았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오징어게임'으로 굳힌 세계적 위상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제대로 과시했다.

칸 국제영화제가 18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린 가운데 이정재는 초반부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 주역으로 꼽힌다. '탑건: 매버릭'으로 30년 만인 19일 칸을 찾은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와 함께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영화제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정은 20일 '헌트'(제작 아티스트스튜디오·사나이픽처스)의 첫 시사회였다. 이날 오전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상영작으로 선보인 영화는 영화제 메인 무대인 칸 팔레 데 페스티벌의 2500여석 규모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관객을 만났다. 모두 5회 상영분의 티켓을 구하지 못한 관객들은 '헌트 티켓을 구한다'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팔레 데 페스티벌 주변을 서성였다. 일부는 한국 취재진에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는 20대 프랑스 여성은 "'오징어게임'을 보고 이정재의 팬이 됐다. 그가 만든 영화가 궁금하다. 이미 모든 상영분 티켓이 매진돼 표를 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이정재·정우성이 주연한 영화 '헌트'가 칸 국제영화제 소식을 다룬 프랑스 잡지들의 표지를 장식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열기를 반영하듯 칸 국제영화제 소식지를 발행하는 미국 버라이어티와 영국 스크린 인터내셔널 등 해외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실었다. 취재진 포토콜과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사진기자들의 자리 경쟁이 치열했다. 사진기자들은 이정재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여기요!"라고 외쳤다. 인터뷰 요청도 이어져 이정재는 22일까지 전 세계 80여개 매체 취재진을 만났다. '헌트'의 홍보마케팅사 영화인의 신유경 대표는 "첫 상영 이후 2~3일 정도 칸에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외신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이정재의 출국이 미뤄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만 영화 '헌트'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려 아쉬움을 남겼다. 영화는 1980년대 서로 북한 간첩으로 의심하며 총을 겨누는 두 안기부 요원의 이야기다.

대규모 총격신과 폭발 장면 등 액션 장면은 대체로 호평을 얻었다. 버라이어티는 "액션 시퀀스가 인상적이며 스타일리시하다"고, 스크린 인터내셔널은 "액션이 강렬하고 배우들의 카리스마 넘친다"고 각각 썼다. 하지만 할리우드 리포터는 "기본적인 설정과 배경 설명이 없는 플롯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디와이어도 "에너지는 넘치지만 너무나 복잡한 스파이 스릴러"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11면

칸(프랑스) | smlee@donga.com

SSG 추신수가 22일 인천 LG전 8회말 2사 후 1-1 동점을 이루는 중월 솔로홈런을 터트리고 있다. SSG는 8회말에만 3점을 뽑아 3-1 역전승을 거두고 2위 LG와 격차를 4경기로 벌렸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추신수 역전 이끈 8회 동점포 1,2위 대결, SSG 위닝시리즈

크론·박성한 적시타…이반 노바 쾌투
선두 SSG, 2위 LG와 4게임차로 벌려

SSG 랜더스가 치열했던 1·2위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SSG는 22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3-1로 역전승했다. 올 시즌 29승(2무13패·승률 0.690)째다. 1위를 굳게 지킨 SSG는 2위 LG와 격차를 4경기로 벌렸다. 지난달 12~14일 잠실 맞대결(2승1패)에 이어 2연속 위닝 시리즈다. 시즌 상대전적은 4승2패.

외국인선발투수간 대결부터 팽팽했다. SSG는 그간 기복을 겪던 이반 노바가 기대에 부응했다. 이날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LG 케이시 켈리는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노바의 1실점이 8회초까지 이어질 정도로 접전이었다. 하지만 SSG는 8회말 추신수의 동점 1점홈런과 케빈 크론, 박성한의 연속 1타점 적시타로 승기를 잡았다. SSG는 고효준(0.2이닝)~조요한(0.1이닝)~서진용(1이닝)의 릴레이 무실점 투로 승리를 지켰다.

1·2위 맞대결다웠다. 사흘간 명승부가 잇달았다. 3경기 모두 2점차 내 승부였다. LG는 불펜투수들의 연투도 불사했다. 고우석은 19일 수원 KT 위즈전부터 3연투, 이정용은 20일부터 2연투했다. SSG는 역전 드라마를 썼다. 3연전 첫날이었던 20일 9회초까지 4-4로 맞서다 9회말 무사 1·2루서 LG의 끝내기 실책으로 5-4 승리를 챙겼다. 21일에는 3-4로 졌지만, 이날은 뒷심을 발휘하며 바로 되갚았다.

이번 3연전은 양 팀 사령탑의 지략대결부터 역전 드라마까지 경기 양상도 다채로웠다. 특히 21일은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했다. SSG는 2-4로 뒤진 6회초 1사 1·2루서 우완투수 이민호를 상대로 좌타자 오준혁을 대타로 냈다. 이 때 류지현 LG 감독은 좌완투수 최성훈을 구원등판시켰다. 김원형 SSG 감독은 또 한번 카드를 꺼냈다. 좌완투수에 강한 우타자 하재훈을 대타로 기용했다. 대타의 대타를 기용한 것이다.

사흘간 5만3376명이 인천SSG랜더스필드를 찾았다. 두 팀은 명승부로 화답했다. 이번 3연전을 돌아본 추신수는 "아직 이른 표현이지만 너무도 팽팽해서 포스트시즌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며 "야구의 수준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데 기여한 경기였길 바란다. 우리는 피 말렸어도 팬들은 재미있게 보셨을 것이다. 우리 팀도 강팀이 돼 가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면

인천 |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CJ WELLCARE

100% 국산 저온농축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